

4) 성황당(城隍堂)

노인회에서 삼헌관(三獻官)을 선정하여 매년 음력 정월 보름날 자(子)시에 간절한 제물로 제사를 지낸다. 다음 날 아침에는 동회를 한다. 그런데 양지마와 음지마 사람들은 울창한 수목으로 서로 바라볼 수 없었으나, 하루는 연기가 올라감을 보고 양 곳의 주민들이 달려가 서로 마주친 곳에 성황당을 모셨는데 때는 1590년경으로 지금까지 모시고 있다. 1959년에 목조 성황당으로 개축하였다.

5) 옥계서원지(玉溪書院址)

옥계서원은 울진읍 읍내리 옥계동에서 1777년(정조 1)에 봉평리에 이건(移建)하였다가, 1832년(순조 32)에 화성 3리 용장으로 옮겼다가, 1876년에 고목리 금성동에 이건하였다.

6) 울진봉평신라비

죽변면 봉평리에 있는 삼국시대 신라의 울령비이며, 국보 제242호이다. 1988년 1월경 이곳 봉평들에서 농부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1988년 11월 4일 국보로 지정되었다. 비의 높이는 204cm, 글자가 새겨진 면의 윗너비 32cm, 가운데 너비 36cm, 밑너비 54.5cm로 전체 모양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부정형(不整形)이다. 비문의 구성은 전체 10행으로 행마다 글자 수가 달라 1행 31자[하부 일부가 파손되어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그렇게 추정됨, 2행 42자, 3행 41자, 4행 42자, 5행 25자, 6행 46자, 7행 45자, 8행 44자, 9행 40자, 10행 42자로 전체 글자 수는 모두 398자로 추정된다. 524년(법흥왕 11) 울진지역에서 신라에 대한 모종의 반란 사태가 발생하여 경주와 삼척의 대군으로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책임자에게 장 60대와 100대를 치고, 얼룩소를 잡아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면 천벌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1년 6월에 조성, 개관한 봉평신라비전시관에 보존되어 있다.

제3절 죽변3리(竹邊三里)[속명 : 봉개, 봉수동(烽岫洞)]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망망대해인 동해를 바라보고 있고, 남쪽은 죽변 1·4리, 서쪽으로는 7번 국도를 경계로 죽변5리가 있으며, 북쪽은 후정1리와 인접하고 있다. 죽변곶의 중간 부분에 위치하여 있고, 마을에서 제일 높은 산인 죽진산(竹津山)이 있으며, 사계절 강한 바람이 많으므로 숲은

드물고, 주택은 주로 남향으로 분포되어 있다. 마을회관은 2003년에 건립되었다. 죽변항과 후정리를 잇는 스카이워크 시설이 조성되고 있다.

2. 마을의 역사

1750년경부터 달성 서씨(達城徐氏)가 처음으로 이 마을을 개척하였으며, 그 후 이씨(李氏), 한씨(韓氏), 박씨(朴氏), 장씨(張氏), 나씨(羅氏), 김씨(金氏) 등이 입주했다. 1907년(광무 11)에 봉수마을 포구에 해신당[할매당]을 건립하고, 이어 현재의 마을회관 옆에 성황당[할배당]을 조성해 매년 정월보름 자시에 동제를 지낸다. 해신당은 마을 어촌계가, 성황당은 마을 총회가 관리한다. 과거에는 매년 해신당과 성황당을 무대로 별신굿을 연행했으나, 최근에는 3년에 1회씩 치른다.

조선 전기에 축조된 ‘죽진봉수대’가 남아있다. 봉수동은 ‘봉개’로 부르며, 자연산 돌미역 서식지인 ‘짬[해중에 형성된 미역바위 군락]’이 17곳가량 형성되어 울진 돌미역의 주산지로 이름 높다. 봉수동은 날재, 개안, 안마, 거릿마, 땃골, 오랑개 등 6개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3. 가구분포

총 400세대가 거주하며 경주 이씨(慶州李氏), 김해 김씨(金海金氏), 영천 이씨(永川李氏), 밀양 박씨(密陽朴氏), 삼척 김씨(三陟金氏), 담양 전씨(潭陽田氏) 등이 분포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군사요새지(軍事要塞地)

조선시대에 이 지역이 군사 요새지였으며, 2차 세계대전 때에는 미공군 B2 9중폭격기 2대가 폭탄을 투하하였는데, 그 당시 이곳에는 일본 육군 포병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지금은 해안대대가 주둔하고 있다.

2) 봉수대(烽燧臺)

조선시대 설치된 봉수대 터가 있다.

3) 봉수진(烽燧津)

천연적인 자연 항구가 있고, 목선 20~30척을 육지로 인양할 수 있는 모래사장이 있다. 축항공사로 접안시설이 갖추어졌다.

4) 성황당

해안에 있는 성황당으로 할매당이다. 최근 봉수어촌계에서 개보수하였다.

5) 짬

미역이 자라고 있는 큰 암석을 짬이라고 하며, 이 마을에 17개의 짬이 있다. 이들 섬바위(島岩), 가리바위(歌俚岩), 물치거랑(物置岸), 돈바위, 맛풀(馬草岸), 벼락바위(雷岩), 노랑바위(黃岩), 식언개안(食言岸), 장두리곶(長頭連串), 동락개안(東樂岸), 거지곶(巨池串), 큰개안(大岸), 민락개안(民樂岸), 집앞가리바위(家前歌俚岩), 아래찬개안(下岸), 웃찬개안(上岸), 수심처(水深處) 등이다.

6) 향나무 성황당

마을회관 옆에 위치하며 할배당이다. 제사는 음력 정월보름에 마을 제사를 지낸다. 풍어제 별신굿은 3년마다 한 번씩 행한다.

제4절 죽변리(竹邊里 : 1·2·4·5리)

1. 마을의 자연환경

솔치봉(솔峙峯) 지맥(支脈)이 동쪽으로 뻗으면서 돌출한 죽변곶(竹邊串)을 기반으로 자연 항구(港口)가 발달하여 있는 항구도시(港口都市)며, 동쪽으로는 동해 건너 128km[80마일] 거리에 울릉도와 독도가 있어 맑은 날에는 울릉도의 삼봉(三峰)을 육안(肉眼)으로도 볼 수 있다. 서쪽으로는 후정3, 4리와 화성리가 있고, 남쪽에는 해안을 따라 봉평리가 있으며, 북쪽은 후정1리와 인접해있다. 죽변1리 마을회관은 2005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또 2리의 마을회관은 2003년에, 4리의 마을회관은 2004년에, 5리는 1996년에 건립됐다. 죽변등대 인근에서 신석기시대 전기 유적이 발굴됐으며, 대가실마을 일원에 드라마세트장이 조성되어 있다. 또 최근에 죽변항과 후정리를 잇는 스카이바이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4년에 죽변면보건지소가 개소되었다. 죽변미향과 이용고도화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죽변시가지를 중심으로 도시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죽변수협을 중심으로 동해안 어업전진기지 건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